

페어뱅크 조공체제론의 비판적 검토* **

: 중국중심주의라는 엇나간 시선의 문제

홍면기(동북아역사재단 명예연구위원)

논문요약

페어뱅크의 조공체제론에 대해서는 그동안 적지 않은 비판과 보완적 논의가 있어 왔다. 이 글은 지금까지의 연구를 심화시켜 나가는 한편 페어뱅크의 학문적 배경, 방법론적 특징, 중국 경험 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서구문화의 우월성을 확신하고 있던 그가 동아시아 중국중심적 시각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현실정치적 요구에 복무하였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 미중간 패권적 경쟁이 가열되면서 중국이 과거 조공체제를 재현하려 한다는, 이른바 신조공체제론 논쟁이 제기되어 왔다. 유의할 것은 이 과정에서 미국의 시각에서 중국을 보고, 중국의 입장에서 동아시아 질서를 그린 페어뱅크 식의 인식론이 개입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가장 모범적인 조공국이라고 말해지지만, 현실적으로는 미국과 동맹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의 역사인식이 한국을 자국의 세력권에 편입하려는 ‘원심력’으로 작동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동아시아 역사는 단순히 중국과 주변의 이항적 관계로 환원할 수 없는 계기와 역동성이 개재되어 왔다. 동아시아사의 다원적 특성을 복원하고, 페어뱅크 이론의 정치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중국중심적 조공체제론에 대한 균형있는 이해와 그 현재적 의미를 읽어내려는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주제어 : 페어뱅크, (신)조공체제, 중국중심질서, 동아시아, 미국, 중국

* 귀중한 논평과 더 생각할 점을 환기해 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 이 연구는 동북아역사재단 조공책봉연구(NAHF-2018-23)의 일환으로 수행된 것이다.

I. 문제의 제기

최근 국제사회에서 동아시아의 비중이 커지고, 중국이 세계사의 주역으로 복귀하면서 동아시아 국제정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전망해 나갈 것인가가 학계와 정책결정자들의 관심사가 되어왔다. 더욱이 중국의 연구자들 자신이 자국의 국력과 국제적 지위에 상응하는 국제정치이론을 제기하고, 중국의 정치지도자들 또한 ‘강한성당’(強漢盛唐) 등을 표방하고 자국의 역사를 현실의 정치공간으로 소환하면서 동아시아 국제정치, 특히 중국의 의도와 향방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역사는 기억과 관성을 통해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많은 논자들은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중국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해 오고 있다는 점 등에서 서구의 역사적 경험과 많은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고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특징과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 왔다.

페어뱅크(John K. Fairbank, 1907-1991)나 니시지마 사다오(西嶋定生, 1919-1998)를 비롯한 일군의 학자들이 조공이나 책봉이라는 렌즈를 통해 동아시아 국제정치를 해명하기 위해 노력해 온 배경이다. 1980년대 들어 이같은 연구를 비판적으로 극복해 나가려는 노력이 전개되고 있지만 이들의 선구적 논의는 이후 동아시아 국제정치를 검토하는 주요한 이정표가 되었고, 후학들의 연구에도 큰 영향을 미쳐왔다.

그러나 그동안 이들의 논의가 중국 중심의 혹은 중국의 우월적 지위를 선형적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학자들의 비판이 간단없이 제기되어 왔다. 다른 한편, 여론이나 정책당국자들을 통해 중국이 과거 조공체제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는 이른바 ‘신조공론’이 유포되면서 전통시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특징과 운행기제 등의 현실적 의의도 중요한 화두가 되어왔다.

특히, 역사적으로 중국에 가장 모범적인 조공국으로 말해지고 있는 한국의 관점에서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조공, 책봉에 대한 자신의 입론점을 세우는 일은 학문적 측면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

다. 한반도의 정세 발전은 분단과 그 독특한 지정학적 위상으로 말미암아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사적 진운에도 매우 중요한 변인이 되고 있다. 반대로 이 지역 정치 행위자들의 한국(사)에 대한 인식과 실천 역시 남북관계와 한반도 미래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한국의 국가전략이나 동아시아 미래질서를 탐색하는 데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역사적 경험을 고구(考究)하는 배경이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전통시대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대한 페어뱅크의 논의를 중심으로 관련 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중국적 세계질서론을 제시한 페어뱅크의 주장은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논쟁의 불씨를 남기고 있다. 이런 점에 유념하면서 이 글은 페어뱅크의 학문적 배경과 방법론적 특징, 그의 주장의 열개와 현재적 의미를 차례대로 검토해 나갈 것이다. 무엇보다 페어뱅크의 조공체제론이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론적 시각과 실천적 함의가 무엇인가를 따져보고자 한다. 앞서 말한 대로 우리의 미래 전략이 거대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 역사적 기억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II. 페어뱅크의 중국사 연구와 방법론적 특징

미국 중국학의 창시자로 일컬어지는 페어뱅크는 중국사연구뿐 아니라 미국의 대중 정책 등 현실 정치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그는 연구자로, 정부기관 요원으로 격동하는 중국의 현실을 목도할 기회를 얻게 되는데, 이런 점에서 페어뱅크의 중국사에 대한 관점이나 지향을 이해하려면 그의 지적 궤적과 더불어 그가 발섭(跋涉)했던 중국에서의 경험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¹⁾

1) 김성규는 페어뱅크가 중국과 그 주변국 간의 전통질서에 접근하게 된 동기가 자신의 중국과 외교교섭 과정에서 부딪힌 역사적 문제의 근원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고 있다. 김성규, “미국 및 일본에서 ‘전통중국의 세계질서’에 관한 연구사와 그 특징 비교.” 『역사문화연구』 제32집, 2009, pp. 147~181 참조

1. 페어뱅크와 중국 : 중국 경험과 역사연구

페어뱅크는 1907년 5월 24일 미국 사우스다코타주 휴론(Huron, South Dakota)의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는 하버드대 재학 중 풍부한 극동 여행경험을 가진 찰스 웹스터(Charles Kingsley Webster)의 영향을 받아 근대 중국사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 페어뱅크는 1929년 하버드대를 졸업한 후 영국으로 건너가 옥스퍼드대에서 중국어와 19세기 영국과 청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리고 1932년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 중국 청화대로 가서 외교사가 장팅푸(蔣廷黻)의 지도를 받기도 하였다. 1935년 중국을 떠난 페어뱅크는 이듬해 옥스퍼드대에서 “The Origin of the Chinese Maritime Customs Service 1850-1858”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하버드대 최초의 중국 역사학과 교수가 된다. 그 이후 페어뱅크는 중국사와 중미관계에 대한 저작을 내는 한편, 1955년 하버드대에 동아시아 문제연구센터(페어뱅크 동아시아연구센터의 전신)를 설립하는 등 하버드대학을 중심으로 미국의 중국학 연구의 터전을 닦았다.

1932년에서 3년간 북경에 체류하는 동안 페어뱅크는 북경대 총장 후스(胡適)를 비롯한 중국 지식인들과 광범위하게 교류하게 된다. 1941년에 미국 정부의 COI(The Coordination of Information)에서 극동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1943년에는 중경에 파견되기도 하였다. 1945년 페어뱅크는 USIS(The United States Information Service) 일원으로 다시 중국 땅을 밟았다. 이 과정에서 페어뱅크는 장개석 정부의 부패와 무능에 실망하고, 연안의 공산당에 주목하여 연안에 미국 영사관을 개설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반장 친공 언행 등으로 그는 미국 우익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냉전 후에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중국을 봉쇄하는 대신 중국과 접촉, 경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미중관계의 발전이 미국의 국가이익(안전)에 중요함을 강조하였던 그는 1991년 9월 14일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2. 학문적 배경과 방법론적 특징

중국에서의 위와 같은 다양한 경험이 페어뱅크 중국사연구 지향에 영향을 끼쳤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역사가 현실적인 문제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그의 정치적인 신념에²⁾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한편, 중국과 중국사에 대한 그의 관점, 시각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성장환경, 그가 영향을 받은 당시 사회와 학문사조 등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천지엔화(陳建華)의 견해를 들어보자.³⁾

우선 기독교 신앙이다. 페어뱅크는 매우 독실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성장하였는데, 특히 그의 어머니는 문화전파에 심취해 있었다. 이런 성장배경은 그에게 일종의 구원자 의식을 심어주었다. 이런 배경에서 그는 자유, 민주 등의 미국적 가치와 경험을 중국에 소개하거나 고통받는 중국 민중의 삶을 구제하겠다는 구도자적 자세를 갖게 되었다. 또 하나, 페어뱅크가 막스 베버(Max Weber, 1864-1920)식의 명제에 감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베버는 *Confucianism and Taoism*(1915; 1920년 영역판 출간)에서 중국은 프로테스탄트와 같은 종교윤리가 없으므로 서방의 충격없이 스스로 자본주의를 발전시키기 어렵다는 주장을 전개하였다. 베버가 서방의 충격만이 중국발전의 길이라고 단언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이런 논법은 미국 중국학계에 일종의 이론적 모델을 제공하게 되었다. 페어뱅크의 충격-반응 모델은 베버의 영향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⁴⁾ 그 다음 들 수 있는 것은 아놀드 토인비(Arnold J. Toynbee, 1889-1975)와 이념학과 등이 가졌던 문제의식의 영향이다. 토인비는 도전과 응전이라는 명제를 통해 문명의 성쇠를 설명한 바 있는 데, 페어뱅크의 충격-반응 모델은 본질에서 이 도전과 응전 모델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⁵⁾ 다른 한

2) 陳建華, “費正清的中國史觀及其中國學研究探析.” 『東方論壇』 제2기, 2016, p. 13.

3) 陳建華, 위의 논문, pp. 14~16 참조

4)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李帆, “韋伯學說與美國的中國研究-以費正清爲例-.” 『近代史研究』 4, 1998; 仇華飛, “从‘冲击-回应’到‘中国中心观’看美国汉学研究模式的嬗变.” 『上海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29卷 第1期, pp. 45~48 참조.

편 페어뱅크의 역사관과 방법론에서는 아날학파의 흔적도 찾아볼 수 있다.⁶⁾ 페어뱅크는 학문을 위한 학문을 반대하고 사상과 실천의 일치로 주장하였다. 공중의 교육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자 했던 그의 문제의식은 아날학파의 그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페어뱅크의 중국사에 대한 관점은 크게 문명의 발생과 문화의 충돌이라는 틀로 이해할 수 있다.⁷⁾ 페어뱅크의 저작은 중국문명이 서구문명과 다른, 황하 유역에서 발원한 농경 위주의 내륙문명이며, 이런 자연조건 속에서 중국인들은 천명에 순응하는 심성을 발전시켜왔다고 본다. 외계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개척하던 서구문명과는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유가적 전통이 중국문화의 핵심적 지위를 획득하면서 수천 년 동안 황제의 통치가 이어져 왔다고 본다. 페어뱅크의 일련의 저작들이 서방과 중국문화의 충돌과 융합이라는 시각을 보이는 것은 그의 이런 생각을 보여주고 있다.

III. 전통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페어뱅크의 조공체제론

전통시대 동아시아 질서는 서주시대의 봉건제도의 천하질서에 대한 개념과 정치적 운용체제를 대외적으로 확장, 진화시키면서 발전해 왔다. 여기서 대국과 소국, 천자국과 제후국의 관계는 사대자소(事大字小)의 이념과 조공책봉이라는 예제를 통해 규율된다.

사대자소는 대국은 은혜와 어짐(恩, 仁)으로 소국을 보살피고, 소국은 의와 신(義, 信)으로 대국을 섬기는 것이다. 즉 대국은 자소를 통해 천하를 보존하고, 소국은 사대를 행함으로써 일국을 보전한다는 이상적인 국제관계가 구축되는 것이다.⁸⁾ 소국(제후국)은 천자국에서 제정한 예제와 문자라는 보편적 문화,

5) 張世明, “拉铁摩尔及其相互边疆理论.” 『史林』 6, 2011.

6) 高国荣, “浅析费正清的历史观与西方两大史学思潮的关系.” 『九江师专学报』 3, 1998.

7) 陳建華, “費正清的中國史觀及其中國學研究探析,” pp. 14~16.

8) 이상익, “유교사상과 전통 동아시아 질서.” 권선홍 외, 『전통시대 동아시아 국제질서』, 부산: 부산외국어대출판부, 2015, pp. 184~185.

규범을 공유하면서 조공책봉이라는 절차를 통해 이 질서에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이 같은 관계는 중국과 주변국뿐만 아니라 주변국 사이에서도 적용되게 되는데, 이런 논리 속에 평화로운 질서를 공유한 이념을 표방하고 있다.

1. 전통 동아시아 국제질서 : 위계의 질서

위와 같은 동아시아의 전통질서는 천자국(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중심과 주변, 대국과 소국의 비대칭적 관계를 특징으로 한다. 이는 주권국가 간의 평등을 전제로, 자구(self help)를 행동원리로 하는 근대 서구 국제질서와의 매우 대조적이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도 ‘형세(形勢)’에 대한 고려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맹자는 사대의 덕목으로 지(智)를 말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의 형세와 이해를 판단하는 ‘타산적 이성’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⁹⁾ 문제는 사대는 형세에 따르는 것이고, 자소는 형세를 초월한다는 이와 같은 이념형 질서에서 대국이 과연 이런 질서관을 지킬 의지와 힘을 갖느냐 하는 것이다. 패권안정론에서 지적하듯이 패권국이 공공재를 제공하는 것은 패권국, 여기서는 중국이 ‘지배적인 수혜자’(dominant beneficiary)가 되는 경우이며,¹⁰⁾ 중국이 이런 이익을 얻기 어렵거나 포기할 때 평화로운 질서는 달성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사대자소라는 증원의 모델을 세계로 확장한 천하질서관으로 평화를 설명하고 설계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의의를 가질 뿐이다. 크래스너(Stephen Krasner)가 말대로 ‘조직화된 위선’(organized hypocrisy)¹¹⁾을 은닉하게 되는 것이다. 20세기 말 이후 중국의 부상과 더불어 중국의 대외관계와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관한 다양한 담론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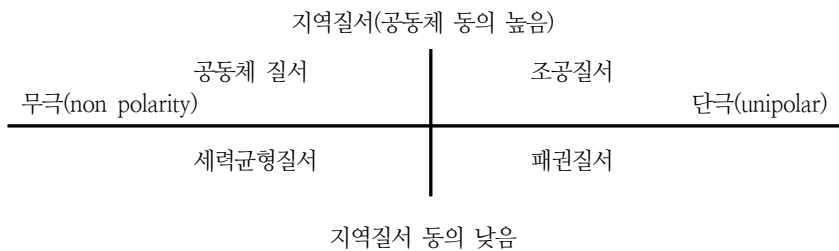
9) 이상익, 위의 글, pp. 183~184

10) 평화라는 공공재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지배적인 수혜자가 공공재를 제공함으로써 얻는 혜택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박창재, 『미국 패권연구』, 고양: 인간사랑, 2009, pp. 100~101.

11) Krasner, Stephen D, “Organized Hypocrisy in the Nineteenth Century East Asia,” *International Relations of Asia-Pacific*, Vol. 1, 2001, pp. 173~197 참조.

위와 같은 전통적인 중국중심적 국제질서관과 인식론적 연속성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신천하체계론이나 신조공질서 등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들이다. 페어뱅크 또한 중국인들의 중국중심적 질서에 대한 뿌리깊은 사고가 중국이 주권국가간의 관계로 특징지어지는 19~20세기 국제질서에 적응하는 데 애로를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¹²⁾ <그림1>은 이와 같은 사고의 관성, 연속성에 유념하여 ‘조공질서’의 위치를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된다.¹³⁾

<그림1>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유형



<그림1>에서처럼 우리는 극성(polarity)과 행위자들의 동의여부를 기준으로 조공질서 외에 공동체 질서, 세력균형 질서, 패권질서 등 네 가지의 질서유형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순쉬에핑은 조공체제를 강력한 중심국가가 존재하며 공공재를 공급하는 체제로 정의하고 동아시아의 경우 역내국가가 중심국가가 제정한 규칙을 자발적으로 준수해 왔다는 점에서 패권체제와 구별된다고 주장한다. 명청시대의 화이질서, 그 중에서도 명청과 조선의 관계가 가장 전형적이라고 한다.

그동안 전통 동아시아 국제정치가 압도적인 힘과 선진적 문명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¹⁴⁾이라는 중심과 상대적으로 힘과 문화적 영향력에서 이에 못미치는

12) Fairbank, John K, "A Preliminary Framework." In John K, Fairbank ed., *The Chinese World Order: Traditional China's Foreign Relation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p. 4.

13) 孫學峰, 黃宇興, "中國崛起與東亞地區秩序演變." 『當代亞太』第1期, 2011. <그림-1>은 이 글의 논의를 필자가 그림으로 작성한 것이다.

주변부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는 주장이 일반적으로 수용되어 왔다. 동아시아의 중심공간(중원)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주변국(부)에 지배적인 행위자로 군림해 왔고, 주변부가 중국이 만든 질서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왔다는 것이다.¹⁵⁾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따져볼 점이 적지 않다. 중국적 천하관에서 말하는 자소사대의 질서가 이상적으로 구현되는 경우 이는 공동체 질서의 이상에 접근하게 되지만, 반대로 힘의 논리가 강하게 개입되면 패권적 질서로 이탈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림1〉 1, 4분면의 조공에 의한 평화와 패권질서는 사실 동전의 양면 같은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동아시아 역사에서 중국이 항상 우월적 지위를 향유한 것도 아니며, 그 국제관계가 중심과 주변이라는 단순한 이항적 관계로 전개되어 왔던 것도 아니다. 동아시아 역사는 중심과 주변, 주변과 주변 사이의 다양한 역동성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중심과 주변사이에 힘의 관계가 역전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¹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자신을 천하의 중심으로 의제한 역사문화적 개념을 고안하고 이런 이데올로기를 강제하면서 자신의 정통성과 세계모니를 주장해 왔고, 조공은 그 가장 유력한 제도적 기반이었다.

14) 역사상 중국이란 국호를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성규는 중국이 ① 주권국가로서의 중국, ② 중원을 차지한 지리적 개념으로서의 중국, ③ 중국이 만들고 향유한 문화, ④ 한족(오늘날은 소수민족을 포함)을 일컫는 민족으로서의 중국 등 매우 다양한 층차를 가졌다고 본다. 신경진, “중국은 한족이 중원서 중화전통 계승한 나라.” 『중앙일보』 2014년 12월 8일. 자세한 논의는 이성규, “왜 아직도 중국인가.” 김광역 외 편저, 『중국문명의 다원성과 보편성』, 서울: 아카넷, 2014, p. 433.

15) Womack 은 동아시아국제정치를 비대칭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Womack, Brantly, “Asymmetry and China’s Tributary System.”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Vol 5, 2012, pp. 37~54. Ledyard 는 이와 다른 관점에서 중국의 성쇠에 따라 주변국과의 관계가 변화하여 왔음을 설명한 바 있다. Ledyard, Carl, “Yin and Yang in the China-Manchuria-Korea Triangle.” In Morris Rossbi ed., *China among Equal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3, pp. 313~353.

16) 조공책봉제도는 주왕이 분봉(分封)을 통해 지배체제를 구축했던 제도로, 한대에 들어와 국내 관계뿐 아니라 주변국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제도로 확장되었다. 황제국가를 지향한 한제국은 주변국과의 관계를 군신상하 관계로 분석하였다. 명실상부하지는 않지만 이 제도를 통해 전통시대 동아시아에서 국제질서가 형성되었다. 이 제도가 가장 정교하게 정비된 것은 한족 왕조인 명대에 와서였다. 역사적으로 북방세력이 강성할 때 중국이 이들에게 조공하며 평화를 샀던 사례는 많다. 한이 흉노에게, 당이 돌궐에게, 송이 요와 금에게 조공을 바친 경우가 그것이다.

2. 페어뱅크의 조공체제론

페어뱅크가 조공체제(tributary system)라는 용어를 처음 제시한 것은 1941년 등사우(鄧嗣禹)와 함께 쓴 청대의 조공체제(On the Ch'ing Tributary System)라는 논문을 통해서였다. 그는 여기서 조공을 동아시아의 '질서'라는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해석하면서 이를 통해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페어뱅크는 1968년의 저작 *The Chinese World Order: Traditional China's Foreign Relations*에서 소위 중국중심적 질서의 이념형(ideal type)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질서는 중심과 주변의 조공관계를 통해 구체적으로 구현되게 된다. 이와 같은 그의 주장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페어뱅크의 이론은 지금까지도 전통시대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통설적 위치를 잃지 않고 있다.¹⁷⁾

(1) 조공체제론의 논리구조와 한계

페어뱅크는 조공체제를 중국의 통치자들이 정치권력의 행사를 자제하던 유교적 교리를 외부에 적용한 것으로, 전근대 중국의 대외관계를 규정짓는 유일한 규범, 야만적이고 미개한 비중국 지역들이 중국의 정치, 윤리 등을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제 영역에서 자신의 자리를 갖게 되는 메커니즘으로 본다.

페어뱅크는 이런 조공제도가 고대 중국인들의 주변에 대한 문화적 우월성에

17) 페어뱅크의 중국중심적 논의가 중국 지배엘리트에게 면책 특권을 주고 있다는 점, 중국과 주변의 다양한 관계를 설명하지 못하는 이념형(ideal type)라는 등의 비판이 있다. Jongtae, Lim, "Tributary relations with the Chosun court." *Cambridge History of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p. 154. Suisheng Zhao는 중국의 제국이 서구의 그것에 비해 특유의 것도 아니고, 평화로운 것도 아니라고 비판한다. Zhao, Suisheng, "Rethinking the Chinese World Order: the imperial cycle and the rise of China."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May, 2015, pp. 2-3. 기타 조공체제에 대한 비판은 Hevia, James L, "Tribute, Asymmetry, and Imperial Formations: Rethinking Relations of Power in East Asia." *Journal of American-East Asian Relations*, special edition(Spring-Summer), 2009, pp. 69~83; 윤영인, "서구학계 조공제도 이론의 중국 중심적 문화론 비판." 『아세아연구』 45권 3호, 2002, pp. 269~290; Zhangfeng, "Rethinking the Tribute System: Broadening the Conceptual Horizon of Historical East Asian Politics."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Vol. 2, 2009, p. 568 등 참조

기초하여 자연스럽게 생성되었으며, 천자와 주변 통치자들은 각각 위신과 무역의 이익이라는 동기와 목적을 위해 조공체제에 참가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주변국이 중국이 천하의 중심이라는 도덕적 가치 혹은 통치 이데올로기를 수용할 것을 기대하고, 주변국은 책봉 등을 통한 정권의 정당성 확보와 무역의 이익을 위해 조공이라는 체제에 동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천자의 이와 같은 지배는 정치,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 몇 가지 난제를 제기하는 것이기도 했다. 즉 정치적으로 중국이 군사적 열세에 처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중국의 우월적 지위를 지켜나갈 것인가, 무역 갈등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문화적 차이와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 등의 문제가 그것이다.¹⁸⁾ 이와 같은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중국은 (자발적 동의라는 형식을 빌어) 주변국 지배자들에게 지배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책봉, 중국식 역법과 예치 등의 개념과 절차를 요구하였다.¹⁹⁾ 중국중심의 질서(Chinese World Order)를 구동하는 기제로서 조공체제가 생성되는 것이다.

한편, 그는 이와 같은 설명의 틀을 고안하면서 중국 중국중심적 질서의 공간 관념을 도입하고 있다. 페어뱅크는 중국중심의 세계를 ① 중국지대(The Sinic Zone), ②내륙 아시아 지대(The Inner Asian Zone), ③ 외곽지대(The Outer Zone) 등의 세 공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런 동심원적 구조에서 거리와 문화수준의 차이에 따라 화와 이가 구별되고, 이들을 ‘다루는’ 방식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 이런 사고에서 나온 중국중심적 세계질서는 자연스럽게 계서적이고 불평등한 특징을 나타내게 된다.²⁰⁾ 사대자소라는 호혜의 미덕을 표방하면서도 중국의 우월과 지배권, 주변의 열등과 굴복이라는 불평등성을 내재시키는 위선의 구조가 성립되는 것이다. 결국 인과 예라는 외피를 두른 조공체제는 천하의 평화, 대일통을 이루기보다는 주변부로부터 중국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혹은 ‘권력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타락할 유혹을

18) Fairbank, John K. ed., *The Chinese World Order: Traditional China's Foreign Relations*, pp. 11~12.

19) Fairbank, *Ibid.*, p. 20.

20) Fairbank, *Ibid.*, p. 2.

안게 되는 것이다.

중국 역대 왕조는 주변국에 대한 정책목표와 수단을 차별적으로 운용하면서 자기중심적 질서를 유지해 왔다.²¹⁾ <표1>은 역대 중국 왕조가 주변부를 지배, 조정, 향화(向化) 등을 통해 통제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군사적 동원에서 이익의 부여, 문화이념적 수단에 이르는 다양한 권력자원이 동원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²²⁾

<표1> 전통 중국외교의 목표, 수단 및 사례

정책목표	정책수단	사례(중국 시대)		비고
		주요수단	보조수단	
지배 (A)	군사적 수단(A1) : 무력 행정적 수단(A2) : 예와 법	유구	베트남	
향화 (B)	문화, 이념(B1) : 문, 덕 종교 : 불교(B2)	한국, 베트남, 유구	일본	
조종 (C)	이익(C1) : 물질적 이익 외교(C2)	유구	일본	

페어뱅크 논리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지나치게 중국중심적 시각에 경사하고 있다는 것이다.²³⁾ 그리고 그동안 페어뱅크 이론의 취약점으로 지적된 대부분 문제는 이와 같은 엇나간 시선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다. 몇 가지 점을 부연해 두기로 한다.

우선, 시간 범위의 문제이다. 페어뱅크의 조공체제론은 중국 근대의 상황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고 있으나 마치 이런 체제가 2000여 년 동안의 역사를 통

21) 김성규, “미국 및 일본에서 ‘전통중국의 세계질서’에 관한 연구사와 그 특징 비교,” p. 155.
 22) Fairbank, John K. ed., *The Chinese World Order: Traditional China's Foreign Relations*, p. 13의 내용을 하나의 표로 정리했다.
 23) 김성규, “미국 및 일본에서 ‘전통중국의 세계질서’에 관한 연구사와 그 특징 비교,” pp. 159~162. 로스키(2015)는 중국 중심적인 편견이 역사적으로 유동적이었던 지역 국제관계를 단순화(essentialization)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고 지적한다. Rawski, Evelyn S, *Early Modern China and Northeast As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p. 4의 내용 참조.

적인 시각을 강조하고 있다. 동아시아 역사상의 다원적 경험이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조공체제 참여자의 역할문제이다. 중국의 연구자들은 조공체제를 구성하는 일련의 원칙, 규칙과 절차 등이 어떻게 조직되고 기능하게 되었는지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조공체제의 운행을 주도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²⁶⁾ 이런 시각에서 중국은 자비로운 패권을 가진 천자(a son of Heaven)의 나라라는 이데올로기가 장착되게 된다. 조공체제를 중국이 고안한 평화의 장치(기제)쯤으로 여기는 이런 주장들은 중국과 주변 간의 상호관계를 추동하던 다기한 요인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균형있는 이해를 회피하거나 거부한다. 조선이 명과의 외교의례나 절차 등에 주동적인 역할을 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은 이런 주장의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

이런 과정에서 조공체제가 가지고 있던 중국의 자기 방어논리나 경제적 교환의 이익 등이 축소, 은폐되고,²⁷⁾ 주변국은 항시 중국 주도의 질서에 자발적으로 참가했다는 식의 언사가 재생산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조공과 역사적 사상(事象)에 대한 위와 같은 중국중심주의적 사고는 신조공체제나 역사왜곡의 정서적 기반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몽' 등 현실정책의 이데올로기로 동원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점이 점검되어야 할 것이다.

(2) 페어뱅크 조공체제론의 지식사회학

콕스(Robert Cox)의 언명대로 모든 이론은 항상 누군가의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 페어뱅크의 조공체제론을 검토하면서 그의 지식사회학적 배경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이다. 즉 페어뱅크의 조공체제론의 검토에서 그 주장의 열개뿐

26) 김진웅, “조공제도에 대한 서구학계의 해석 검토.” 『역사교육논집』 50권, 2013, p. 416 참조.

27) 이는 중국학자들의 중국중심적 사고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국중심적 해석은 전근대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김진웅, 위의 논문, p. 426; Zhangfeng, “Rethinking the Tribute System: Broadening the Conceptual Horizon of Historical East Asian Politics,” pp. 545~574 참조.

아니라 그 이면에 작용하고 있는 사회적 배경과 근원 등의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먼저, 페어뱅크가 역사가였을 뿐아니라 ‘학문의 설계자’(academic organizer)였으며, 미중관계에서 중재자 등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개인적 지식’(personal knowledge)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가 미국의 국가이익의 관점에 충실했던 역사학자였고, 그런 점에서 그가 중국중심적 세계질서, 조공체제론 등을 전개한 시대적 배경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²⁸⁾ 그가 조공체제론을 제기한 1941년은 파시즘과 일본 제국주의가 득세하던 때였다.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역사적 위상과 역할을 부각하여 일본을 견제하려는 수요가 있었을 것이다. 다시 20여 년 후 미소 간 냉전이 고조된 시점에서 친중 지식인 페어뱅크가 조공체제를 더욱 체계화하여 ‘중국적 세계질서’(Chinese world order)를 주장했던 것은 과연 우연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하는 것이다.²⁹⁾

둘째, 페어뱅크가 19세기 이후 근대적 국제관계를 ‘조약체제’(Treaty System)로 파악하고, 여기에 포섭되지 않는 전통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조공체제(Tributary System)와 대비시켰던 맥락이다. 즉 그는 서세동점을 조공체제가 조약체제로 강제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하였는데,³⁰⁾ 이런 관점에는 서구를 문명의 표준으로 간주하는 편견이 녹아있다. 페어뱅크의 서구중심적 시각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위 두 사실은 페어뱅크의 사고에 미국의 잣대와 렌즈를 통해 중국을 보고 중국적 잣대와 논리로 주변을 파악하는 이중의 오리엔탈리즘이 작동하고 있음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 주변의 다양성과 잠재력과 역동성에 주목하지 않았던 그의 조공체제론은 출발부터 서구와 중국중심적 시각에서 동아시아질서를 재

28) M. Evans, Paul, "Fairbank: Intellect and Enterprise in American China Scholarship." Ph. D. dissertation, Dalhousie University, 1982, p. 328 등 참조. 이와 관련, 여영시(余英時)도 페어뱅크가 중국어나 한문 문헌에 정통한 편이 아니었고, 그의 연구도 서구의 2차 사료에 많이 의존하였다고 하면서, 치밀한 역사이론가 스타일도 아니었던 그가 도전과 응전 등 사회과학적 시각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관점을 고수하였다는 비판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 余英時, “費正清的中國研究.” 『西方漢學家論中國』(1993).

29) 김영진, “전통 동아시아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CSF 전문가 칼럼』, 2017-09(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조.

30) 김성규, “미국 및 일본에서 ‘전통중국의 세계질서’에 관한 연구사와 그 특징 비교.” p. 154.

단하는, 엇나간 편견이 잠재하고 있었던 셈이다. 요컨대, 페어뱅크 이론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 흠결 못지않게 그가 가지고 있던 지식배경과 정치성을 적확히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3. 조공체제와 동아시아 평화 : 위선의 평화

그동안 페어뱅크의 조공체제론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cynical) 중국의 수사적 외피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³¹⁾ 크레스너가 말하는 '조직화된 위선'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결국 조공체제가 동아시아 장기 안정에 기여했느냐의 문제로, 이 점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신조공질서론의 이데올로기적 연원과 복선을 드러내는 데 중요하다.

데이비드 강(David C. Kang)은 힘의 배분과 손익 균형(cost-benefit equation), 위계적 질서를 뒷받침하는 문화와 사상, 그리고 각국 국내정치와 체제 내 행위자들에게 침투하여 영향을 미치는 중국적 제도가 지역체제의 안정성을 지지하였다고 설명한다. 즉 패권적 지위를 가진 중국이 지역의 안정과 평화라는 공공재 제공자 역할을 해왔다는 것으로,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안정되었을 때 동아시아 지역질서도 안정되었다고 보는 것이다.³²⁾ 이 같은 구조에서 주변국은 중국에 조공을 바치며 신속(臣屬)하는 대신 내정의 자율성을 확보하게 되고, 중국은 굳이 주변국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도 천하를 다스리게 된다. 명분과 실익 간의 교환관계가 유지되는 한 주변국 또한 중국에 대한 복종을 거부할 실익이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통 동아시아에서도 그 질서 유지의 동인은 궁극적으로 힘과 이익

31) Suzuki, Chusei, "China's Relations with Inner Asia." In John K. Fairbank ed., *The Chinese World Order: Traditional China's Foreign Relations*, pp. 180~197 참조

32) C. Kang, David, "Hierarchy and Stability in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John G. Ikenberry and Michael Mastanduno, ed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Asia-Pacific*.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3, pp.169~171; C. Kang, David, *China Rising*.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7, p. 41; 순위에평의 조공체제 해석도 이런 입장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었으며, 그런 측면에서 조공, 책봉도 기본적으로 정치적 현실주의적 세계관을 그 저변에 깔고 있는 것이다. 이들 조공체제나 책봉체제는 중국이 물리적 힘, 문화적 역량, 도덕적 수준에서 주변국을 압도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국의 패권을 지지하는 이 같은 요소에 변동이 있을 때 중국의 '우위'와 '자비'에 의해 작동되는 평화의 기제(레짐)는 더 이상 작동될 수 없는 것이었다.

실제 역사적인 경험으로 보아도 조공체제는 패권을 가진 중국의 강약과 의도, 주변의 안정성 등에 따라 국제정치 공간에서 다양한 양태로 변주되었다. 중국과 주변 간 힘의 관계가 역전되고 동아시아에 다원적 체제가 들어섰던 10~13세기에 조공체제에 의한 일원적 질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명목적인 상하관계에서는 조공책봉이, 동등한 국가 간에는 맹약이 성립되어 현대의 조약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몽골에 의한 새 질서가 들어서기 전 다원적 국제질서기에 각국은 세력균형과 실리에 입각한 외교정책을 구사하였던 것이다.³³⁾

구한말 청은 조선과의 조공관계가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동아시아의 세력균형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런 위선적 관계를 지속할 수 없었다.³⁴⁾ 조선이 자국의 속방임을 고집하던 중국은 일본이 조선에 탈취하려 하자 적극적인 개입 정책으로 급선회하게 되는데, 이는 조공체제의 현실주의적 속살, 다시 말해 평화 레짐으로서의 조공체제의 허구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하겠다.³⁵⁾ 결국, 동아시아역사에서 조공체제가 평화레짐으로 기능해 왔다는 주장이 근거가 박약하다는 것이다.³⁶⁾

33) 윤영인, "10~13세기 동북아시아의 다원적 국제질서에서의 책봉과 맹약." 『동양사학연구』 101집, 2007, pp. 119~144 참조.

34) 박홍서, "내재화된 위선? : '중국적 세계질서'의 현실주의적 재해석." 『國際政治論叢』 제50집 4호, 2010, pp. 7~27.

35) 저우팡인(周方銀)은 게임이론을 빌어 조공체제가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기보다는 양자 간의 이익의 균형을 추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정치체제가 안정적으로 운행되고, 중국의 핵심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조공체제가 동아시아에서 정치체의 변화를 제한하고, 그 결과 한국, 일본, 베트남 등이 중국(제국)에 흡수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조공체제가 중국의 자비에 의한 평화체제라고 미화하는 것은 과도한 일반화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Fangyin, Zhou, "Equilibrium Analysis of the Tributary System."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Vol. 4, No. 2, 2011, pp. 147~178; Womack, Brantly, "Asymmetry and China's Tributary System," pp. 37~54.

IV. 백 투 더 퓨처 : 조공체제의 부활인가, 다원공존의 질서인가?

지금까지 페어뱅크의 조공체제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근대 시기 특성의 역사적 구조에서 가능했던 조공체제가 평화를 담보할 수 없었다는 사실도 살펴보았다. 그런데도 중국의 부상 이후 페어뱅크의 조공체제론을 다시 주목하는 것은 그의 대국주의적 사고가 소위 신조공체제론에 배어있기 때문이다.

1. 조공체제의 부활? : ‘신조공체제론’의 겉과 속

최근 중국이 증가된 국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외진출을 꾀하면서 일부 논자들은 과거 동아시아의 조공관계와 비슷한 ‘신조공체제’의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주장을 내놓기 시작하였다.

“조공체제를 서구의 국제정치이론으로 해석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 조공체제 중의 불평등한 규범은 이미 폐기되었지만 그 전체론적인 관점, 대동의 이상, 합리적 질서관과 중용의 사유 및 행동은 국가가 유일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여전히 참고할 만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라는 친야칭(秦亞青)의 주장은 이 점에서 매우 시사적이다³⁷⁾. 이런 논의의 인식론적, 실천적 함의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지점을 확인해 두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이런 주장들이 여전히 전근대 시기의 조공체제를 지극히 중국적인 시각으로 재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아시아에서 수천 년간 조공체제가 유지되었으며, 이는 문화적인 우월성을 가진 중국이 풍부한 경제력을 자본으로 국제 질서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진부한 논리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³⁸⁾ 요컨대, 중국이 선량하고 ‘자비로운

36) 이승우는 호시국이었던 서구 제국과의 조약체결이 중국의 대외질서를 붕괴시켰던 것이 아니며, 조공체제의 해체는 1875년 유구의 조공사절이 단절되면서부터라고 한다. 이승우, “근대 조공책봉질서 붕괴에 대한 중국의 대응.” 『중국과 중국학』 제3호, 2005, p. 49.

37) 秦亞青, “探索與反思: 中國國際關係學30年(1978-2008).” 『中國人文學30年』, 復旦大學出版社, 2008, p.354

38) 周巧生, 駱平, “新朝貢體系”焉有復興之理.” 『荷澤學院學報』 第30卷, 第1期, 2008. 관련된 논의는

패권국'(benevolent hegemony)이었다는 논리이다.

두 번째는 이런 논의들이 부상하는 중국의 대외정책을 포장하는 논리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진핑 정부 들어서 내세우고 있는 중국몽, 친성혜용(親誠惠容) 등의 이데올로기적 수사는 이와 같은 동향을 보여주는 예증들이다. 이삼성이 21세기의 시점에서 과거 전통시대나 근대에 제국을 경험했던 사회들이 과거의 개념을 미래의 세계질서 내지 지역질서를 구성하는 개념적 수단으로 동원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한 것은 이런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다³⁹⁾. 그는 자오팅양(趙汀陽)이 신천하체계를 성리학적 윤리적 환원주의를 통해 2천년 동아시아질서를 담으려 하고 있으며, 이는 21세기의 이상적 미래질서를 표상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티베트가 중국의 일부라는 점을 강조하며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왕후이(汪暉)의 주장 또한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⁴⁰⁾

셋째, 위와 관련하여 미국이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위와 같은 학문과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결합에 매우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청사학자로 분류되는 퍼듀(Peter C. Perdue)는 최근 일부 논자들이 조공체제가 제국 중국의 대외관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미래질서의 한 모델 구실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을 비판하면서, 이런 신화는 역사의 진실을 간과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세계에서 중국의 위상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⁴¹⁾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지난 2월 일본을 방문했을 때 “지금 중국은 명 왕조 때의 책봉 정책을 부활시켜 주변을 모두 자기 세력권에 넣으려는 것 인지도 모르겠다”라고 비판한 데 이어 3월 미 상원 세출위에서 “중국은 남중

Cheow, Teo, “China’s revives tributary system in regional ties.” 『海峽時報』(Straitsimes) 2003년 11월 27일 등의 논의 참조.

39) 이삼성, “제국과 천하담론의 개념사적 맥락.” 고려대 중국학연구소 주최 학술회의(중국의 세계관 : 천하체계와 주변국가, 2018.11.3.), p. 1.

40) 이삼성, 위의 논문, pp. 10~11, 13.

41) C. Perdue, Peter, “The Tenacious Tributary System.”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24, No. 96, 2015, pp. 1002~1004. 신청사에 대한 설명은 김선민, “신청사의 등장과 분기(分岐)-미국의 신청사 연구동향-.” 『내일을 여는 역사』 45호, 2011, pp. 191~208 참조.

국해에서 주변의 모든 다른 나라들이 더 강하고 큰 나라(중국)에 조공을 내거나 아니면 잡자코 따르라는 일종의 조공국가 방식을 채택해 신뢰를 깨고 있다”고 비난한 것은⁴²⁾ 신조공체제를 둘러싼 학계의 논쟁이 이미 현실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언론이나 학계의 신조공체제론은 중국중심주의적인 페어뱅크 조공체제론의 논리구조와 매우 닮아있다.⁴³⁾ 동아시아 국제정치 행위자의 인식, 제도 등에 과거의 그림자가 존재하며 현재와 미래의 조직 원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성의 경고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른바 신천하질서가 나타나느냐의 여부보다 그런 인식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더욱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이다.⁴⁴⁾ 국제정치의 생태와 운행기제가 과거와 판이하게 다른 현재의 국제체제에서 한중관계가 과거와 같은 양상으로 회귀할 수는 없다. 콕스의 표현을 빌리면 이전의 중국중심의 조공체제가 작동할 수 있었던 ‘역사적 구조’(historical structure)가 더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⁴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권적 지위를 욕망하는 중국이 전통시대 천하질서 내지 중국중심적 질서의 복구를 정당화하기 위한 해석을 쌓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⁴⁶⁾ 특히, 가장 모범적으로 중국에 조공했던 조선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한국에서 ‘신조공체제론’은 이 같은 아픈 역사의 기억을 자극하

42) “중국, 주변 나라들을 조공국가 다루듯 해.” 『조선일보』 2017년 3월 24일.

43) Suisheng Zhao는 중국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전략적 목표를 위해 역사적 기억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학자들은 21세기 부상한 중국의 행위를 예측하는 데 과거의 영광된 역사를 끌어내려한다고 지적한다. Zhao, Suisheng, “Rethinking the Chinese World Order: the imperial cycle and the rise of China,” p. 1, 21.

44) 전재성, 『동아시아 국제정치-역사에서 이론으로-』,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11, p. 117.

45) Cox는 그림시(Antonio Gramsci)의 아이디어를 빌어 관념, 제도, 물리적 능력 간의 관계로 ‘역사적 구조’를 설명한다. 이런 열거에 비추어 보면 현재의 동아시아 국제질서나 한중관계는 제도나 물질적 능력 등의 차원에서 과거와 다르다. 다시 말하면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조공체제는 특정한 역사적 구조에서만 가능한 체제였다는 것이다. 전재성이 말하는 물적 조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전재성, 위의 책, p. 132.

46) 전재성, 위의 책, p.133~134; 옌웨통(閩學通)은 중국이 국가주권론에 머물러 불개입에 머물기보다는 나름 대로의 도덕관을 가지고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그 가치를 중국의 고대 정치철학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Xuetong, Yan, *Ancient Chinese Thought, Mordern Chinese Powe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1 등 참조.

면서 중국에 대한 경계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⁴⁷⁾ 더욱이 조공체제의 실질과 정치적 맥락을 사상한 이런 시각이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시각에 투영됨으로써 통일문제 등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해치고 있다는 점은 각별히 유념할 대목이다.⁴⁸⁾ 이처럼 페어뱅크의 조공체제론이 소위 신조공체론과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의 조공체제론이 지금까지도 철저히 극복되지 못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더욱이 많은 흠결을 안고 있는 조공체제론이 역사에 대한 인식을 왜곡하고, 유관국의 국가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조공문제는 더 이상 과거나 역사만의 문제가 아닌 현재와 정치의 문제가 된다.

2. 페어뱅크를 넘기 위한 몇 가지 문제

(신)조공체제론이 이처럼 심각한 현실적 함의를 갖는 것이라면 페어뱅크의 중국중심주의적 시각을 비판적으로 극복하는 것을 중요한 학문적, 실천적 과제로 새로이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의 조공체제론이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대국주의적 인식으로 왜곡된 역사상이 신조공체제론 등을 통해 재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페어뱅크 조공체제론과 소위 신조공체제론을 정확히 이해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전과 다른 메타적 시각에서 문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를 넘는 더 넓은 지역의 경험을 아우르는 비교사적 시각에서, 그리고 동아시아나 한국이 안고 있는 중국의 역사왜곡과 미중의 패권적 갈등으로 말미암

47) 한국에서도 중국이 제국적 욕망을 가지고 신조공체제를 도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왔다. 정재호, “역사지우기는 신조공체제 부활, 패배주의 떨치며 대응카드 내밀어야.” 『월간 중앙』 9월호, 2004; 전인갑, “중국은 ‘제국성 국가’...자비로운 제국은 없다.” 『신동아』 3월호, 2018 등

48) 조공은 한중 역사갈등의 핵심쟁점의 하나이다. 한국을 중국의 속방으로 보는 중국인들의 역사인식은 현실 정치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비화할 개연성을 잠재하고 있다. 2013년 미 의회보고서가 중국의 왜곡된 역사관이 한반도 통일을 막는 요인이라고 지적한 것이 그 예이다. Th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CRS), *China's Impact on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and Questions for the Senate*, 2012. 12.11 (<http://www.gpo.gov/fdsys> 검색 가능); 2017년 4월 미중 정상회담 과정에서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역사적으로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고 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국은 사실상 중국 일부였다” 시진핑, 트럼프에게 충격 발언. 『중앙일보』 2017년 4월 20일.

은 현실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론을 찾아간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의 이론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책봉체제론을 비교사적인 시각에서 검토하고 있는 조동일(趙東一)의 문제제기는 중요하다. 조동일은 중세의 문명을 유교문명권, 힌두불교문명권, 이슬람문명권, 동서기독교문명권 등으로 구분하고, 책봉체제가 각기의 문명권을 하나로 묶는 데 반드시 필요한 기제였다고 본다.⁴⁹⁾ 구체적인 사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각 문명권에서 (조공)책봉이라는 정치적 의례를 통해 권력 관계를 확인하는 관행이 보편적으로 존재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책봉이라는 행위가 권력이 존재하는 곳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라면 페어뱅크류의 조공체제론도 동아시아 세계에서만 관찰되는 특수한 양상이었다고 하기 곤란한 것이 된다.⁵⁰⁾ 중국의 지배라는 것은 그 용어가 공허하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페어뱅크의 말은 이런 사정을 말하는 것이다.⁵¹⁾ 허구를 만들어 자신을 위장하는 중국인들의 사고에는 거만함과 방어적 사고라는 이중적 태도가 감춰져 있고, “역사란 소녀와 같다. 그가 원하는 대로 옷을 입힐 수 있다”는 식의 자의적 역사해석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⁵²⁾ 중국사 중심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아시아가 보인다는 지적⁵³⁾은 중국을 통해 아시아를 보려했던 페어뱅크적 시각의 전도를 요구한다.⁵⁴⁾ 덧붙여 우리의 현실문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점을 재삼 확인해 두기로 한다.

첫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조공이라는 정치적 행위가 권력관계가 존재하는 곳에서 발견되는 관계 양식의 하나라고 한다면 조선의 조공외교도 지배와 굴

49) 개념적으로 조공은 책봉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조공과 책봉이 반드시 상호교환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50) 조동일, 『동아시아문명론』, 파주: 지식산업사, 2010, pp. 196~246.

51) 페어뱅크는 조공체제가 ‘진부하고 신선하지 못한 신화’(a hoary myth)라고 표현한다. John K. Fairbank ed., *The Chinese World Order: Traditional China's Foreign Relations*, p. 1.

52) 로스 테릴 지음, 이춘근 역, 『새로운 제국-중국』, 파주: 나남출판, 2003, p. 103, 129, 133.

53) 권중달, “중국사 중심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아시아가 보인다.” 『중앙일보』 2018년 3월 6일.

54) 니시지마는 책봉이라는 정치제도를 통해 동아시아 문명권을 발견하고자 했다. 반면 페어뱅크는 전통 동아시아 질서가 중국을 중심으로 운행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조공체제로 설명한다. 두 사람 모두 중국의 중심적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착안점이 다른 것이다.

종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만으로 보기보다 당시의 이념적 지형과 제도, 국력 관계와 경제적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그 실상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설령 조선이 가지고 있었던 국력의 한계로 ‘굴욕적인’ 조공을 한 적이 있다고 해도 조공체제론의 인식론적 연장에서 운위되고 있는 신조공체제론을 피하기 어려운 숙명이나 기정(既定)의 것으로 수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둘째, 여기에 덧붙여 페어뱅크식의 조공체제론이 현실적으로 중국 역사 왜곡과 한반도 문제를 보는 주변국의 시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각별히 유념해야 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미국 국제정치학의 압도적 세례를 받는 우리 학계와 언론이 강대국 정치의 시각에 매몰되어 미국 등에서 발신되는 논리와 주장을 마치 우리의 것인 양 오용해서도 안 될 것이다. 중국의 논리와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미국적 논리와 정책에 지나치게 기대는 것은 중국을 자신의 ‘보호자’처럼 생각했던 조선시대의 사고를 미국으로 옮기는 타자지향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지적 방향 속에서 한국 외교의 상상력이 심각히 훼손될 수밖에 없음은 자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페어뱅크의 조공책봉론을 비판적으로 극복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해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대한 강대국 중심의 시각을 극복하고 당면한 현실 상황을 우리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출발점이 된다.

이런 과정은 ‘우리가’ 빠져있는 지식사회학적 편향과 왜곡을 알아차리고 시정해 나가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페어뱅크의 중국과 미국 중심주의라는 엇나간 시선을 교정하면서 동아시아 다원공존의 질서를 주동적으로 제시하고,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는 방법론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동아시아 국제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전통질서의 유산에 충분히 유념하면서 신조공체제론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국제정치적 다이내미즘을 포착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페어뱅크의 조공체제론과 동아시아에서 전개되었던 다기한 공존의 방식과 경험에 대한 이해가 동아시아 미래를 이해하고 전망하는 유용한 역사적 자산이 되지 않을까?

V. 맺는말

동아시아 역사상의 조공은 중국과 주변국 간에 존재했던 관행, 제도이며 현상이다. 페어뱅크는 조공제도를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특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중국중심적 질서론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페어뱅크 조공체제론은 서구와 중국이라는 이중의 프리즘을 거치면서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면서 미국의 현실정치적 요구에 복무해 왔다. 전후 미국이 국제관계와 학문적 영역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면서 동아시아사에 미국 중심의 이론적 영향력이 증대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동아시아 역사에서 다원공존의 경험을 발굴하고 한국의 국제정치적 위상을 추상해 내는 작업도 억제될 수밖에 없었다.

페어뱅크의 조공체제론을 비판적으로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은 한국사회의 이와 같은 지적 지형을 타파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상통하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역사적 경험에서 한국의 역할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중국 중심의 역사상과 결을 달리하는 동아시아를 보는 시각을 발굴하는 한편,⁵⁵⁾ 비교사적 시각에서 조공체제론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지층을 드러내는 데 더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인에게 중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떠한 관계를 맺어 나갈 것인가는 숙명같은 질문이다. 급격히 근육을 키운 중국이 미국과 패권적인 경쟁 의도를 드러내면서 분단이라는 악조건을 안고 있는 한국에게 중국은 더욱 민감한 화두가 되어왔다. 역사는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지만 현재와 미래에 대한 지남의 역할을 한다. 더욱이 역사적 관성과 기억의 힘을 가벼이 볼 수 없다. 많은 한국인들은 중국이 역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중국중심적 사고를 조장하면서 대국주의적 행태로 일탈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동아시아 역사상 한국의 역할과 비중에 대한 정당한 해석을 갖지 못한 채 감

55) 세계체제이론과 불교문화권 시각에서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볼 수 있다는 제안 참조. 윤영인, “10~12세기 동아시아 국제관계사의 재조명을 위한 대안적 시각과 방법론 모색.” 권선홍 외, 『전통시대 동아시아 국제질서』, pp. 227~240.

정적 대응이나 고토회복주의 등의 퇴행적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역사기억의 어긋남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다원공존의 동아시아공동체는 요원한 것이다. 우리의 입지와 역할을 확인하고 천명해 나가지 않으면 다시 강대국 정치의 논리와 축수가 다시 우리를 압도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우리 역사가 대륙의 정세에 일방적으로 종속되었다거나 중국중심의 질서에 굴종으로 일관해 왔다는 역사적 피해의식을 불식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역사인식에 각인된 중국중심적 역사해석이 만들어온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처해있는 지문화적 지형은 무엇인지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분단의 해소와 동아시아 평화라는 이 시대의 근본 명제 역시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페어뱅크 조공체제론을 다시 살펴야 하는 근거이다.

<참고문헌>

- 권선홍 외, 『전통시대 동아시아 국제질서』, 부산: 부산외국어대출판부, 2015.
- 김선민, “신청사의 등장과 분기(分岐)-미국의 신청사 연구동향-.” 『내일을 여는 역사』 45호, 2011.
- 김성규, “미국 및 일본에서 ‘전통중국의 세계질서’에 관한 연구사와 그 특징 비교” 『역사문화연구』 제32집, 2009.
- 김영진, “전통 동아시아 국제질서 개념으로서 조공체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8집 제1호, 2016.
- 김진웅, “조공제도에 대한 서구학계의 해석 검토.” 『역사교육논집』 50권, 2013.
- 로스 테릴 지음, 이춘근 옮김, 『새로운 제국-중국』, 파주: 나남출판, 2003.
- 박창재, 『미국 패권연구』, 고양: 인간사랑, 2009.
- 박홍서, “내재화된 위선? : ‘중국적 세계질서’의 현실주의적 재해석.” 『國際政治論叢』 제50집 4호, 2010.
- 윤영인, “10~13세기 동북아시아의 다원적 국제질서에서의 책봉과 맹약.” 『동양사학연구』 101집, 2007.
- 윤영인, “서구학계 조공제도 이론의 중국 중심적 문화론 비판.” 『아세아연구』 45권 3호, 2002.
- 이삼성, “제국과 천하담론의 개념사적 맥락.” 고려대 중국학연구소 주최 학술회의(중국의 세계관 : 천하체계와 주변국가, 2018.11.3.).
- 이성규, “왜 아직도 중국인가.” 김광익 외 편저, 『중국문명의 다원성과 보편성』, 서울: 아카넷, 2014.
- 이승우, “근대 조공책봉질서 붕괴에 대한 중국의 대응.” 『중국과 중국학』 제3호, 2005.
- 전재성, 『동아시아 국제정치-역사에서 이론으로-』,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11.
- 조동일, 『동아시아문명론』, 파주: 지식산업사, 2010.
- 폴 코헨 지음, 이남희 옮김, 『학문의 제국주의』, 아산: 순천향대학교 출판부, 2013.
- C. Kang, David, “Hierarchy and Stability in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John G Ikenberry and Michael Mastanduno, ed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Asia-Pacific*.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3.
- _____, *China Rising*.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7.
- C. Perdue, Peter, “The Tenacious Tributary System.”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24, No. 96, 2015.
- Fairbank, John K. ed., *The Chinese World Order: Traditional China's Foreign Relation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 Fangyin, Zhou, “Equilibrium Analysis of the Tributary System.”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Vol. 4, No. 2, 2011.

- Hevia, James L, "Tribute, Asymmetry, and Imperial Formations: Rethinking Relations of Power in East Asia." *Journal of American-East Asian Relations*, special edition(Spring-Summer), 2009.
- Jongtae, Lim, "Tributary relations with the Chosun court." *Cambridge History of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 Krasner, Stephen D, "Organized Hypocrisy in the Nineteenth Century East Asia." *International Relations of Asia-Pacific*, Vol. 1, 2001.
- Ledyard, Carl, "Yin and Yang in the China-Manchuria-Korea Triangle." In Morris Rossbi ed., *China among Equal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3.
- M. Evans, Paul, "Fairbank: Intellect and Enterprise in American China Scholarship." Ph. D. dissertation, Dalhousie University, 1982.
- Rawski, Evelyn S, *Early Modern China and Northeast As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 Womack, Brantly, Asymmetry and China's Tributary System,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Vol. 5, 2012.
- Xuetong, Yan, *Ancient Chinese Thought, Mordern Chinese Powe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1.
- Zhangfeng, "Rethinking the Tribute System: Broadening the Conceptual Horizon of Historical East Asian Politics."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Vol. 2, 2009.
- Zhao, Suisheng, "Rethinking the Chinese World Order: the imperial cycle and the rise of China."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May, 2015.
- 高国荣, "浅析费正清的历史观与西方两大史学思潮的关系." 『九江师专学报』 3, 1998.
- 仇華飛, "从'冲击一回应'到'中国中心观'看美国汉学研究模式的嬗变." 上海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29卷 第1期.
- 秦亞青, "探索與反思: 中國國際關係學30年(1978-2008)." 『中國人文學30年』, 復旦大學出版社. 2008.
- 孫學峰, 黃宇興, "中國崛起與東亞地區秩序演變." 『當代亞太』 第1期, 2011.
- 余英時, "費正清的中國研究." 『西方漢學家論中國』(1993).
- 李帆, "韋伯學說與美國的中國研究-以費正清為例-." 『近代史研究』 4, 1998.
- 張世明, "拉铁摩尔及其相互边疆理论." 『史林』 6, 2011.
- 周巧生, 骆平, "新朝贡体系"焉有复兴之理." 『荷澤學院學報』 第30卷, 第1期, 2008.
- 陳建華, "費正清的中國史觀及其中國學研究探析." 『東方論壇』 제2기, 2016.
- 김영진, "전통 동아시아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CSF 전문가 칼럼」, 2017-09(대외경제정책 연구원).

- “한국은 사실상 중국 일부였다’ 시진핑, 트럼프에게 충격 발언.” 『중앙일보』 2017년 4월 20일.
- 관중달, “중국사 중심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아시아가 보인다.” 『중앙일보』 2018년 3월 6일.
- 신경진, “중국은 한족이 중원서 중화전통 계승한 나라.” 『중앙일보』 2014년 12월 8일.
- “중국, 주변 나라들을 조공국가 다루듯 해.” 『조선일보』 2017년 3월 24일.
- 전인갑, “중국은 ‘제국성 국가’... 자비로운 제국은 없다.” 『신동아』 3월호, 2018.
- 정재호, “역사지우기는 신조공체제 부활, 패배주의 떨치며 대응카드 내밀어야.” 『월간 중앙』 9월호, 2004.
- Th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CRS), *China's Impact on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and Questions for the Senate*, 2012, 12.11(<http://www.gpo.gov/fdsys>)
- Cheow, Teo, “China's revives tributary system in regional ties.” 『海峽時報』(Straitsimes) 2003년 11월 27일.

Abstract

A Critical Review of the Fairbank's Tribute System: Some Problems of the Sino-centric Perspective

Myeonki Hong(Honorary Research Fellow,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There has been a lot of criticism and complementary discussions on Fairbanks' tribute system. This paper emphasizes that it is important to review the academic background, methodological characteristics and Chinese experience of Fairbank, as well as deepening the research results so far. It seems that while being convinced of the supremacy of Western culture, he served for real-political need from the U.S. by adding another view of Sino-centrism in East Asia,

In the wake of the rise of China, the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has heated up, and the debate about the so called neo-tributary order has been raised that China tries to rebuild the tribute system of the past. It is worthwhile to note that in this process, China is viewed from the American perspective, and the Fairbank-based epistemology of Sino-centric East Asian order is strongly intervened.

Korea is said to be historically the most exemplary tributary state of Chins, but in reality it has an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Under such circumstances, it seems that the risk of the U.S. and Sino-centric historical perception operating as a dual centrifugal force to incorporate Korea into their own powers cannot be ruled out.

East Asian history has experienced many momenta and dynamics that cannot be simply reduced to a binary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its neighbors. In order to restore the pluralistic characteristics of East Asian history and to understand the political context of the Fairbank's theory, it is necessary to have a balanced understanding of the Sino-centric tribute system by Fairbank and the sense of problem to read its current meaning.

Keywords : John K. Fairbank, (New)Tribute system, Chinese World Order, East Asia, USA, China

투고일: 2018년 11월 20일, 심사일: 2018년 12월 3일, 게재확정일: 2018년 12월 16일